100% 취업률 자랑했던 전문계高

"불황에는 못당하겠네"

10명 중 2~3명 꼴 취업…군 입대자 크게 늘어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한때 100% 취업률을 자랑하던 전문계고(옛 실업고)졸업생들마저 실업자로 내몰고 있다.

18일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달 졸업한 전남지역 64개교 전문계 고교 졸업생 6천367명 가운데 취업자는 1천319명(20.7%)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6천617명의 졸업생 중 1천627명(24.6%)이 취업한 것에 비하면 3.9%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반면 졸업생 중 군 입대자는 올해 778명(12.2%)으로, 전년 654명(9.9%)보다 2.3%포인트 증가했다. 나머지는 대부분 대학 진학이나 재수, 가사 종사 등을 택했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 처음으로 취업률 증가 사업에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떨어지는 취업률을 잡지는 못했다.

이 같은 현상은 극심한 경기 침체로 인해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크게 줄이면서 취직을 포기하고 군 입대를 선택하거나 대학 등에 진학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지역도 전문계고 졸업생도 10명 중 7명꼴로 실업자가 됐다.

올해 13개교에서 4천559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광주지역 전문계고의 취업자는 1천 441명으로 31.6%의 취업률을 보였다. 그나마 전년보다 1.5%포인트 상승한 수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지난 2007년부터 운영해온 취업 프로그램의 영향이 크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007년부터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중 유일하게 4억원(광주시 3억, 시교육청 1억)의 예산을 들여 산업체와 학생간 취업·채용 약정 체결을 돕고, 취업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는 등 취업 지원 사업을 펼쳐왔다.

그 결과 2008년에는 124명이 65개 업체에 취업했고, 2009년에는 150명이 79개 업체에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중소기업들과 협약을 맺어 올해 졸업생 중 226명을 취업시키기도 했다.

시·도 교육청 관계자는 "취업률을 올리기 위해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취업현장의 분위기는 최악"이라면서 "취업을 희망하는 졸업생은 많지만,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군 입대 등을 선택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영재교육 '스타트'

초·중·고생 1,921명 선발 본격 육성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영재교육이 신학기를 맞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광주시교육청은 18일 "본청 산하 과학교육원과 교육정보원, 동·서부교육청의 영재교육원 1천 1명, 광역단위 초·중·고교 영재학급 920명 등 모두 1천921명을 선발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영재교육원은 대상 학생을 모두 선발했으며, 영재학급은 이달 말까지 중·고생 4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중 교육정보원 산하 IT영재교육원이 4~6학년 초등생과 1학년 중학생 101명을 뽑아 지난 16일 개강했다. 이곳에서는 IT 강국의 명성에 걸맞은 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래밍, 수학, 과제별 수행평가 등이 기본, 심화 과정 등으로 나뉘어 연 450시간 운영된다.

과학교육원 영재교육원은 중학생(1~3학년) 160명이 수학, 과학, 영어 등의 심화수업을 받게 되며 동·서부 교육청이 운영하는 영재교육원도 각 340명과 400명을 선발, 다음 달 초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영재학급은 초등학교 7곳, 중학교 9곳, 고등학교 2곳 등 모두 18개 학교가 운영 학교로 참여하고 대상 학생은 920명이다.

운영학교를 중심으로 주변 4~5개 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영재학급은 방과후 수업이나 토요일을 활용해 영재교육을 한다.

한편 2003년부터 운영된 영재교육에 참여한 학생은 8천여명에 이르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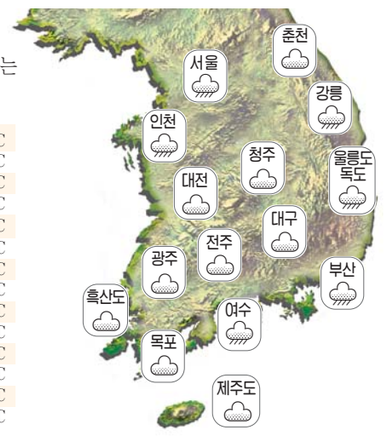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6시 38분 해짐 18시 43분 달뜸 02시 01분 달짐 11시 34분

꽃잎에 빗방울

대체로 흐리겠으며 비가 오는 지역도 있겠다.

광 주	흐림	14/21℃
목 포	흐림	14/18℃
여 수	흐리고 한때 비	13/17℃
완 도	흐림	14/20℃
구 례	흐림	11/22℃
해 남	흐림	14/20℃
장 흥	흐림	13/19℃
고 흥	흐리고 한때 비	12/19℃
순 천	흐림	12/20℃
영 광	흐림	15/21℃
진 도	흐림	13/20℃
전 주	흐림	14/22℃
남 원	흐림	11/21℃
흑산도	흐림	10/15℃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남~북서	1.0~1.5m	목포	07:35	14:00
먼바다	남~북서	1.0~2.0m		19:14	--:--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	0.5~1.5m	여수	01:55	09:09
먼바다	남~남서	1.0~2.0m		13:42	20:39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0(금)	21(토)	22(일)	23(월)	24(화)	25(수)
날 씨						
최저/최고	10/21	7/22	9/16	6/15	3/12	2/10

초여름 같은 봄날씨

광주 아침 최저 14.6도·낮 최고 22도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이 3월 중순 아침 기온으로는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게 나타났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9일 광주·전남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으며,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지역도 있겠다"고 18일 예보했다. 강수량은 5㎜ 미만으로 예상된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0~15도, 낮 최고기온은 17~22도로 전망된다.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춘분을 이틀 앞둔 18일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은 14.6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938년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후 7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상청은 20도를 웃도는 초여름 날씨가 주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은 한반도 남쪽의 고기압이 계속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동중국해상에서 따뜻하고 습윤한 기류가 유입됨에 따라 높은 기온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국방부 '불온 서적' 憲訴

軍법무관 2명 파면·징계

지난 해 10월 이른바 군내 '불온서적' 지정이 장병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 소원을 낸 군 법무관 7명 가운데 2명이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이상희 국방장관이 오늘 육군중앙징계위원회가 헌법소원을 낸 A 법무장교와 B 법무장교에게 어제 내린 파면 결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파면 징계를 받은 법무관들은 군인사법에 의해 현역 신분이 발탁돼 불명예 제대를 해야 하고 이 경우 10년 이상 장기복무 법무관들은 전역하더라도 변호사 자격을 얻지 못한다.

또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5년간 공직 임용이 불가능하며 퇴직금 50%가 감액된다. 앞서 육군중앙징계위원회는 법무관 2명에 대해 군 위신 실추와 복종의무 위반, 장교 품위 손상 등을 사유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사자들은 징계 항고와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법무관 가운데 육군 1명과 공군 1명은 헌소를 취하했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조치가 취해졌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이들 현역 군 법무관 7명은 작년 10월 국방부가 23권의 도서를 '불온서적'으로 지정해 군내 반입금지 조치를 하자 "장병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후 국방부는 정부 법무공단에 소송을 의뢰하고 교수와 변호사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들에게 자문하는 등 헌법재판소에 해당 서적 반입금지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5·18 영화 '순지' 시사회 … "광주 넘어 전국으로"

광주産 문화콘텐츠 5월 광주에서 개봉

18일 광주 메가박스에서 열린 영화 '순지' 시사회에 참석한 박광만 감독〈사진 맨 오른쪽〉과 주연 장세윤〈오른쪽에서 두번째〉씨 등 출연배우들이 관객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가 제작한 첫 5·18 영화 '순지'가 18일 오후 3시 광주 메가박스 M관에서 시사회를 가졌다.

이날 시사회에는 최종만 광주행정부시장과 5·18 단체 회원 등 300여명이 객석을 가득 채워 '순지'에 대한 관심을 반영했다.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진행한 2006 문화콘텐츠특성화 브랜드 상품 발굴 지원작인 '순지'는 광주 지역 영화사 씨네웍스(대표 박광만)와 대동문화재단이 제작을 맡는 등 자본과 배우, 스탭 모두 지역민이 참여한 '광주 영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작품이다.

'순지'는 5·18 당시 행방불명된 아버지를 둔 여주인공 '순지'를 통해 5·18을 이야기한 작품으로 극 영화지만 2007년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렸던 5·18민중항쟁 전야제 행사를 앵글에 담아 다큐멘터리적 요소도 가미됐다.

총 제작비 3억 7천만원이 투입된 저예산 독립영화 '순지'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 완성시킨 광주산(産) 문화콘텐츠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었지만 개연성 약한 스토리 등 작품의 완성도 면에서는 다소 아쉬움을 남겼다. 관객들 역시 5·18 기념행사와 얽힌 주인공들의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다소 난해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순지'는 오는 5월 광주 지역부터 소규모 개봉할 예정이며 이어 전국 개봉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국내 개봉 후에는 북미 DVD배급권 계약도 체결할 계획이다.

각본까지 쓴 박광만 감독은 이날 시사회에서 "광주의 아픔을 치유하고 민주·인권·평화 도시로서의 광주를 보여주기 위해 영화를 제작했다"며 "'순지'가 광주를 넘어 전국 관객을 만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무료 법률·세무 상담 광주시 북구

광주시 북구는 다음달부터 주민들의 권익보호 및 비용절감을 위해 '무료 법률·세무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무료 법률·세무 상담실' 운영은 최근 계속된 경기침체로 각종 법률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주민과 기업체 등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마련됐다. 상담 서비스는 북구청 1층 민원실에서 열리며 상담 시간은 둘째(법률상담)·넷째 주(세무상담) 월요일 오후 3시다.

상담 내용은 부동산 임대차·채권·채무·교통사고·노임문제·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주민들이 경제적 형편 때문에 법률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무료 법률·세무 상담 서비스를 통해 고충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